

2023년 대표협의체 4차 회의록

◆ 기록자 : 박 재 훈

회의일시	2023.11.23.(목) 16:00	장소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다목적강당(3층)	차수	4차
참 석 자	* 대표협의체 위원 (20명) 공공위원: 2명 민간위원: 18명 * 배석자: 5명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 담당 주무관, 협의체 직원-간사2명) * <u>전체 25명 참여</u>				
회의주제 및 심의안건	○ 보고사항 1. 2023년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결과 2. 2024년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안) ○ 심의안건 1. [2023-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 기타논의 및 전달사항				
주요토의 및 의결내용	[개회] ▷ 천영권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4차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를 선언함 <div style="text-align: right;">[의사봉 3타]</div> [보고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1 2023년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결과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2 2024년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안) </div> ▷ 허용진 위원 : 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음.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많이 바쁨. 보내주신 자료가 152페이지 분량이던데 다 볼 수가 없어 요약해 주었으면 함. 전년도와 금년도의 큰 차이와 중점사업을 1장~2장 정도 요약본이 있으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음. 그리고 2페이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에서 1-1-4 ‘퇴원 환자 지원’은 올해 대비 내년 목표 및 예산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1-3-2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는 인원 및 금액도 줄음. 사람이 없어서 줄인 건지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음 ▷ 조운경 주무관 : 먼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살펴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요약본을 보내드리겠음. 153페이지 분량 되는				

자료가 사실 법정 서식임. 92페이지 1-3-2의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에 대해 상세하게 적혀 있음. 중점 사업이나 예산 및 사업비가 줄고 참여자 계획도 줄인 부분에 대해 찾아봤는데 사실 경력 단절 여성 관련 사업이 해운대구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듯함. 사업 대상자를 늘려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조금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다른 부처의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사업을 지금 편성되는 예산으로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임. 그래서 지금 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원활히 진행된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 늘려서 확대를 더 해 보자고 해서, 아마 타 부처가 중복되는 사업 때문에 예산도 줄고 대상자 규모도 조금 줄었던 것 같음. 하지만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업인 만큼, 해운대에서 10대 중점 추진 과제로 내년도에 다소 축소된 면이 있지만 진행이후 점차 확대해서 할 예정임

- ▷ 원요한 위원 : 32페이지 및 98페이지의 1-4-1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지원'에서 이것이 심리 지원이 아니고 그냥 문화체험 지원 같음. 심리 지원이라는 것은 MBTI라든지 테스트를 해서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하고, 때로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든지 건강사회복지사를 만나는 등의 내용이 심리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그러나 심리 지원은 없고 문화체험 밖에 없음. 그리고 6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해외 연수 받는 것이 종사자 처우 개선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에 대한 뒤에 내용은 없음. 그런데 1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제수당 지원'을 보면 월 3만 원 지원해주고 장기 근로 수당 5~10만 원 주고 복지 포인트도 있는데, 앞에 있는 종사자 처우 개선에는 150명인데 올해도 150명, 내년에도 150명임. 종사자가 총 700명 넘음. 그럼 나머지 2/3 이상은 다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받을 수가 없음. 6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 대표적인 구청장의 공약사항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해보험을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공제위원회에서 했는데 노인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됨. 누락된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는 종사자가 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39페이지에는 목표가 500명이라고 함. 그러면 100명이나 누락된 인원이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럼 이 100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함. 다시 136페이지에서 복지수당 1인당 3만 원은, 내년에 5천원이라도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임

- ▷ 이재기 복지기획팀장 : 종사자 처우 개선의 경우 당초 300명 정도로 예산을 올렸는데, 나름 복지관이나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시설에서는 국내외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등 좀 바우기가 힘든 기관은 참여하기가 힘들. 그래서

150명을 해도 전체 예산을 소진 못할 정도로 수요가 좀 넘는 부분이 있음. 그리고 직무 수당은 저희들이 내년에 지속적으로 올리려 하나 내년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려움. 600억 정도 예산이 줄었고 신규 사업, 지원 사업들이 동결 내지 삭감되는 추세임. 올해나 내년은 힘들 것 같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음

- ▷ 조금순 위원 :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료집의 14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 지역사회 여건이 핵심 과제가 나와 있는 거랑 연결이 좀 될 것 같음.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구는 전국에서도 인지도 있는 도시이지만 부산 내의 타 구에서 많은 것들을 해운대를 향해서 보고 있다고 느낌.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아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서 간 격차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같음. 해운대구가 거대한 숲이라면 그 아래 18개동은 다양한 특색을 가진 나무가 될 수 있고 밑에는 가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방대한 자료집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가져가야 될 동서 간의 균형 격차, 물론 그 안에서 지금 보니 노인 인구와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음.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복지박람회를 처음으로 수영강 시민공원에서 열렸을 때 사실 모두 당황했었음. 교통 수단도 애매하고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 있을지 우려했는데 막상 행사에 참여해 보니 우리가 처음으로 서부권에서 이런 큰 복지 박람회 행사를 한 것 같음. 사실 누리마루나 센텀 쪽에서 할 때는 그렇게 유동인구들이 많지 않아서, 솔직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수영강 시민공원에서 할 때 저녁까지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며 진작에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음. 이것이야말로 서부권에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을 좋은 기회에 모시고 참여시킴으로써 이것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단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발전적인 시도라는 점에서도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됨. 개인적으로 동서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했던 노력들, 다른 부분도 프로그램명이나 어떤 사업을 했는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했던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던 동서 간의 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그게 복지 박람회가 기본 목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가졌음. 해운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큰 아젠다는 동서의 균형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그야말로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촘촘한 복지가 이뤄지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함. 거대한 숲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환경을 가진 숲에서 살아야 좋은 나무가 자라는 거라고 생각함. 모든 나무들이 다양한 특색으로

골고루 자랄 수 있도록, 해운대구가 좋은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줬으면 좋겠음

[심의안건]

1 [2023-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 ▶ 천영권 위원장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심의 상정하도록 하겠음

[의사봉 3타]

- ▶ 황미영 위원 : 74페이지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 국비 2천만 원으로 사업 시행한 것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한 것이 맞고 2023년도에는 사업을 구와 연계해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없음. 내용이 바뀌어야 함. 이 내용 자체가 23년도에 이 사업 구현되지 않았고 다르게 바뀌지 않았는지? 24년도에 당연히 바뀐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수정 및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 ▶ 천영권 위원장 : 주무 부서에 확인하고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음
- ▶ 이지훈 위원 : 13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1회 이상 근속 종사자 복지 포인트 (1인 5만원/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설된 것인지 궁금함
- ▶ 김신애 복지정책과장 : 내년에 순수 구비 100%로, 시비와 상관없이 지원하고자 일단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은 있으나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으로 우리 구에서 5만 원 상당으로 내년에는 지급하려고 계획되어 있음. 확정된 사항은 아님. 이번 예산안에 의결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 천영권 위원장 : 타 구는 사회복지사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는 해운대구 종사자까지 포함하고 나가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5만 원은 순수 구비로 그렇게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의회에서 결정돼야 될 것 같음
- ▶ 조운경 주무관 : 동서 간의 격차 내용 관련하여 110페이지 1-5-3 '다복지구 거점기능 구축'을 참고 바람. 작년에는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들어가 있었음. 2022년 말에 현 청사 활용 방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음. 현 청사 활용 방안의 설문조사 결과가 복지관 건립이 7% 이상 나오게 되면 이를 이슈화시켜 복지 시설이 없는 다복지구에 복지 거점기구를 구축해 복지의 동서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확인해 보니 이 부분이 7%가 안 되었음. 현장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합한 결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북카페'였음. 2위가

‘생활체육시설’ 3위가 ‘전시관’, ‘미술관’이었는데, 이는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이고 올해 다시 주민 포럼이나 전문가 포럼 등을 계속 열면서 현 청사를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아직 결론은 안 나왔지만 요즘은 건물을 단일 시설로 활용하는 것보다 복합시설로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구비하여 주민의 복지 욕구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수렴하고 있는 중임. 그래서 저희도 그 청사에 거점 기구를 할 수 있는 방안 중 작은 복지관 조성으로 넣어보긴 했는데 사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조금 어렵게 됨. 복지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방안이 계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조금순 위원 : 복지관이 갖고 있는 의미나 역할이 지역 주민의 균형적인 것, 그다음에 복지와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다양한 방법이 나올 거 같음. 그래서 어떤 것들이든 지금 우리 서부권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자꾸만 맴돌다 보니 방법이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 거기에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본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좋을 것 같음.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지 조금 충분히 바라보는 방법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함. 저는 그래서 복지관 논의는 7%도 안 나오는 게 그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함
- ▷ 박영아 위원 : 사전에 FGI 참석을 하면서 중동, 우동, 좌동, 송정동을 포함해서 복지 욕구는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거점 기관들이 없다 보니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거지, 복지센터의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고 별도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사를 활용하자는 것이었음. 조금순 위원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해운대구의 가장 큰 이슈가 동서 간의 격차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복지 박람회를 항상 우-중-좌동이나 센텀 쪽이 아닌 반송, 재송 쪽에 있는 수영 강변에서의 축제가 하나의 성과가 되니 해운대구에서 지역사회 보장을 위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동서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과들을 한번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제안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임. 조운경 주무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 4번째 중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안에 내용마다 동서간의 격차를 위해서 지역 균형 복지 인프라 구축에서 다복지구 거점 기능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내용들이 포함되기는 하는데 꼭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아닌 구나 민간에서 하고 있는 동서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임원회의 등을 통해 의견들을 좀 확인해보고 다음 번 대표 협의체 회의 때 제안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 ▷ 최윤정 위원 : 두 분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 다음에 또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가지고 북카페라든지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복지구로 분류되고 있는 지역에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같은 경우 지금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지금 좌동 쪽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 거리가 너무 멀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저희 두 기관이 이 지역의 사업을 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큰 공백이 발생함. 저는 FGI가 아니지만 FGI를 참여하시는 분이라든지 관계자분께서 잘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 물론 북카페를 통한 복지를 겸한 복합 시설도 있을 거고, 분명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 지역에 복지 수요자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님. 복지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공급을 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인근에 있는 기관에서 굉장히 수십년 동안 굉장히 수고롭게 일을 하고 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주는 결과물이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께서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음
- ▷ 천영권 위원장 : 최윤정 위원님 언급하신 문제는 좌동, 중동, 우동, 송정 지역에 종합복지관이 없다는 것임. 그래서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커버하고 있던 문제고 조금순 위원께서 언급하신 문제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하든지 갑을 지역을 떠나 그쪽에 행사를 좀 많이 하는 등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뜻임
- ▷ 최순이 위원 : 가족센터가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함.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합해지는 게 가족센터임. 근데 가족센터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음.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보면 가족센터에 치매도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와 있음. 가족센터가 여러 가지 가족들을 커버할 수 있는데 그 곳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음. 앞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데 전국적으로는 거의 다 합쳐져 있음. 가족센터로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할 공간이 없어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런 부분도 고민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
- ▷ 천영권 위원장 : 우리 구 청사가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음. 복지관, 북카페, 문화체육시설, 전시관 등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동사무소 내 좁은 공간을 하나 쓰는데 그 대강당을 쓰는데 동사무소 행사와 같이 겹치면 아무런 일도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음. 그래서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과 건의 부탁드림
- ▷ 김신애 복지정책과장 : 아까 원요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종사자 심리 지원’ 부분에서, 심리지원이라고 해서 꼭 정신과에서 상담 받는 것만 심리 지원이

아니고,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험 등 심리지원자 수입. 그동안 관련 프로그램으로 영화 관람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신세계백화점에 2층에서 1인당 10만 원 넘는 영화를 관람하고 ‘너무 좋다’, ‘스트레스 해소 된다’는 반응이 매우 높아 심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것임. 향후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혹시 문화체험이 아닌 심리 치료비가 지원이 된다면 이를 반영할 예정임. 그리고 동서 격차 부분은 이미 계획이 수립된 단계이고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동서 격차는 일반 사업과 중점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지원 대상자 수나 예산액 조정을 해서 동서 격차를 없앨 수 있도록 하겠음.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은 보완하여 추후 보고드리겠음

▷ 천영권 위원장 : 의의가 없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3타]

[기타논의 및 전달사항]

- 기관별 사업안내 및 자유발언 -

- ▷ 추동주 위원 : 저희 기관의 경우 12월까지 공사를 막 들어갔음. 두 달 동안 지금 화장실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음. 저희 회의장이 약 34년 되었는데, 12월 28일까지 회의장 공사를 마무리 후, 내년 대표협의체 회의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해운대지사에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음

[폐회]

- ▷ 천영권 위원장 : 이상으로 2023년 제4차 해운대구 지역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

[의사봉 3타]



참석자 명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참석명부 (2023.11.23.)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참석확인	비고
1	부산해운대시니어클럽	관장	천영권		민간위원장
2	해운대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이승훈		부위원장
3	해운대구 주민복지국	국장	김윤정		
4	해운대구보건소	소장	정연희		
5	해운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이원종		
6	부산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박진수		
7	해운대구의회	구의원	최은영		
8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대표	최낙용		반송2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9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기영		
10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지사장	허용진		
11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지사장	추동주		
12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영희		
13	반석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황순희		
14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황재필		
15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원요한		
16	반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현숙		
17	반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여동훈		
18	영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지훈		
19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최윤정		
20	송국클럽하우스	소장	유 숙		
21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관장	황미영		
22	장산노인복지관	관장	정영욱		
23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조금순		
24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최순이		
25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윤나영		
26	해운대구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홍경자		
27	도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도대현		
28	수영로교회	목사	김도림		
29	소중한눈안과	이사	신승혜		
30	해운대구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정혜경		
3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부장	박영아		실무위원장

2023.11.23.(목) 16:00 해운대구문화복지센터 다목적강당